전남 방언의 파생 접미사(2)
— 형용사와 부사의 파생을 중심으로 —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이 논문은 전라남도 방언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의 종류를 밝혀 보고, 이들 접미사들의 쓰임이 중앙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방언의 변이는 언어의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지만, 복합어, 특히 파생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이기갑(2005)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기갑(2005)에서는 접미사를 기능에 따라 '의미', '정의(情意)', '형태'의 세 종류로 나눈 바 있다. 의미적 접미사는 어기에 새로운 어휘적 의미를 첨가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선도과제(KRF 2004-041-A00236) 연구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논문의 초고는 「배달말학회」(2005년 10월 15일, 순천대학)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당시 토론을 맡아 주었던 허철구 선생의 유익한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주 제 어: 방언, 전남 방언, 파생 접미사, 부사 파생 접미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
dialect, Jeonnam dialect, derivational suffix

하며, 정의적 접미사는 높임이나 낮춤(비하) 등 말할이의 주관적 감정을 어기에 덧붙이는 접미사이다. 반면 아무런 의미적, 정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어기의 형태를 확장시키는 데만 기여하는 접미사를 형태적 접미사라 하였다. 과연 형용사와 부사의 파생 접미사들이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이다.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어근(root)'과 '어기(base)'의 개념을 정의해 두고자 한다. Bauer(1983)에 의하면 '어근'은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키지만, '어기'는 접사가 결합될 수 있는 형태이면 어느 것이나 해당된다. 그래서 'touchable'의 'touch'는 어근이면서 어기가 되고, 'untouchable'의 'touchable'은 어기일 뿐 어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 '높직하다'의 '높-'은 어근인 동시에 어기이며 '높직-'은 여기에 '-하-'가 결합될 수 있으므로 어기일 뿐, '높-'과 '-직-'으로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어근은 될 수 없다.

2. 형용사 파생 접미사

2.1. 의미적 접미사

2.1.1. '-하-'에 의한 파생[1)]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파생시킬 수 있는 매우 생산력이 강한 접미사이다. 이 접미사는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전남 방언에서도 다양한 쓰임이 확인된다. '-하-'는 그 자체가 특정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전형적인 의미적 접사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법적 기능도 넓은 의미의 의미적 기능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1) 전남 방언은 '-하-'에 대해 '-허-'와 '-하-'의 두 방언형이 지역적 대립을 보인다(이기갑 1987). 여기서는 '-하-'로 통일하여 제시한다.

의미적 접미사의 범주에 포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하-'가 어근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따뜻하-'나 '조용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하-'의 쓰임은 한국어의 모든 방언에 두루 나타나므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이와 달리 '-하-'가 파생 접미사가 포함된 어기에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높직하-'와 같은 예가 이 범주에 들 것이다. '높직하-'는 '높직-'에 '-하-'가 결합된 것인데, '높직-'은 다시 어근 '높-'에 접미사 '-직-'이 결합된 것이므로 결국 '높-'에 '-직-'과 '-하-'의 두 접미사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접미사는 결코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높직하-'는 '높직은 하다'나 '높직 안 하다' 처럼 '높직-'과 '-하-'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높-]-직]-하-]와 같은 위계를 갖는 구조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파생의 접미사라 하더라도 '-직-'과 '-하-'는 그 기능이 다른데, 전자가 어기를 형성한다면 후자는 어간을 형성하여 독립된 단어를 만든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직-'처럼 오직 어기만을 만드는 데 기여할 뿐, 독립된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접미사를 '어기 형성 접미사'라 부르고자 하는데, 이제 전남 방언에서 쓰이는 이들 어기 형성 접미사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2.1.1.1. 공간 형용사

공간 형용사는 '높다/낮다, 깊다/얕다, 멀다/가깝다' 등과 같이 어떤 대상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양적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데, 그 단위 명사는 일반적으로 양의 정도가 큰 형용사로부터 파생된다. 예를 들어, 높고 낮은 정도를 가리키는 단위 명사는 '높이'만 가능하고 '*낮이'는 불가능하다. 단위 명사가 아니더라도 '높은 정도'라고 표현할 뿐 '*낮은 정도'라고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정도가 큰 형용사가 무표적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데, 그러나 공간 형용사의 무표성은 어느 언어에서나 확인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말에서만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길다/짧다, 넓다/좁다, 두껍다/얇다' 처럼 양적으로 측량이 가능한 형용사들도 경우에 따라 공간 형용사와 행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 넓은 의미의 공간 형용사로 볼 만하다.

어기 형성 접미사 가운데 공간 형용사 또는 공간 형용사를 포함한 일부 형용사에만 결합되는 접미사가 있다. 중앙어의 '-으막-', '-직-', '-다랗-' 등이 이런 예인데, 이러한 접미사들이 전남 방언에도 나타나지만 그 세세한 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2.1.1.1.1. -으막-[2)]

접미사 '-으막-' 은 중앙어의 '짤막하다, 나지막하다, 야트막하다' 등에서 보인다. 이 '-으막-' 은 '짧다, 낮다, 얕다' 와 같은 공간 형용사의 작은 쪽에 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길다, 높다, 깊다' 와 같이 정도가 큰 공간 형용사에는 결합되지 못한다(송철의 1992:231).[3)]

'-으막-' 은 정도가 〈조금〉 또는 〈상당함〉을 의미한다. 사전에서는 '꽤' 나 '조금' 등으로 그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짤막하다' 를 〈조금 짧은 듯하다〉, '나지막하다' 를 〈꽤 나직하다〉 등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예이다. 이것은 '-으막-' 이 가리키는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짤막하다' 는 아주 짧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짧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으막-' 이 결합된 형용사는 어근에 비해 외연이 좁아지는 특징이 있다. '얕다' 와 '야트막하다' 를 비교하면, '야트막하다' 는 오로지 구체적인 공간에만 쓰일 수 있어 추상적인 영역에까지 번져서 사용되는 '얕다' 와는 차이를 보

2) '늘그막' 의 '으막' 은 단어 형성 접미사로서 어기를 형성하는 '-으막-' 과 달리 〈무렵〉 등의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으막-' 은 아마도 '오르막, 내리막, 가풀막' 처럼 공간을 나타내는 '막' 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자그맣다' 는 '자그마하다' 로부터 발달한 것인데, 이것이 '*작으막하다' 와 기원적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자그마하다' 가 '작으막하다' 로부터 발달한 것이라면 '작다' 에도 '-으막-' 이 결합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다. '얕은 생각, 얕은 믿음, 얕은 지식, 얕은 잠' 은 가능하지만 '야트막한 생각, 야트막한 믿음, 야트막한 지식, 야트막한 잠' 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송철의 1992:232).[4]

중앙어의 '-으막-' 이 정도가 작은 공간 형용사에 제한되어 쓰인다면, 전남 방언의 쓰임은 훨씬 자유롭다. 정도가 작은 형용사인 '낮다, 나찹다(低), 얕다, 야찹다(淺), 잘룹다(短), 작다(小)' 등은 물론이고, 중앙어에서 불가능한 '높다, 짚다(深), 크다' 처럼 정도가 큰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질다(長)' 만은 '-으막-' 에 의한 파생이 불가능하다. 정도가 큰 형용사까지 '-으막-' 이 쓰일 수 있는 것은 유추의 결과로 해석된다. 의미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낱말들끼리는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이기갑 1983), '노푸막하다', '지푸막하다', '크막하다' 등은 반의어 관계에 있는 '나지막하다', '야트막하다', '자그막하다' 등과의 유추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잘루막하다' 가 있음에도 '*지르막하다' 와 같은 새로운 낱말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질쭉하다' (=길쭉하다)와 같은 낱말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미 '질쭉하다' 가 해당의 의미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르막하다' 가 따로 파생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 가. 나차막하다,[5] 야트막하다, 야차막하다, 잘루막하다, 자그막하다
나. 노푸막하다, 지푸막하다, 크막하다
다. *지르막하다

전남 방언의 '-으막-' 이 〈상당한 정도〉를 의미하면서 구체적인 공간에만 제한되어 쓰이는 점은 중앙어와 동일하다. 그러나 정도가 큰 공간 형용사에까지 넓혀 쓰이게 된 것은 결정적인 차이라 하겠다. 그만큼 전남 방언의 '-으막-' 은 중앙어에 비해 더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4) 이 점에서 '나지막한 소리' 는 예외이다(송철의 1992:232).
5) '나차막하다' 는 '나찹다' 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접미사 '-으막-' 이 결합할 때 '나찹-' 의 /ㅂ/은 탈락된다. '야차막하다', '잘루막하다' 등도 마찬가지이다.

2.1.1.1.2. '-직-' 과 '-지막-'

접미사 '-직-' 은 '높직하다, 널찍하다, 멀찍하다, 길찍하다, 얄찍하다' 등의 공간 형용사나 '묵직하다, 굵직하다, 되직하다, 늙직하다' 등의 형용사에서 찾아진다. '얄찍하다' 를 제외하면 대체로 정도가 큰 공간 형용사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철의 1992:232). 다만 '깊다' 나 '두껍다' 의 경우는 '깊직하다' 나 '두껍직하다' 와 같은 파생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철의(1992:232)에서는 '깊숙하다' 와 '두툼하다' 가 이 빈자리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직-' 도 추상적인 경우에 쓰이지 않으며(송철의 1992:232), 〈상당한 정도〉를 의미하는 점에서 '-으막-' 과 다르지 않다.

전남 방언에서도 '-직-' 은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정도가 큰 형용사에 나타난다. '높직하다, 널찍하다, 멀찍하다, 묵직하다, 굵직하다, 되직하다' 와 같은 낱말들이 이런 예이다. 다만 '널찍하다' 는 '넙직하다' 로, '굵직하다' 는 '국직하다' 등으로 쓰이는 점이 다를 뿐이다. 중앙어에서 가능한 '길찍하다, 얄찍하다, 늙직하다' 등은 쓰이지 않는데, '길찍하다' 는 '질쭉하다' (=길쭉하다), '늙직하다' 는 '늙수구레하다' (=늙수그레하다) 등의 방언형이 해당의 의미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얄찍하다' 는 정도가 작은 형용사로서 원칙적으로 '-직-' 이 결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전남 방언에서 쓰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중앙어에 없는 '실찍하다(=실하다), 눅직하다(=묽숙하다)' 등이 이 방언에 나타난다. '실찍하다' 는 '실(實)하다' , '눅직하다' (=묽숙하다)는 '눅다' 에서 파생된 것이다. '눅직하다' 는 아마도 반의어인 '되직하다' 로부터 유추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직-' 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접미사에 '-지막-' 이 있는데, 중앙어의 '높지막하다, 멀찌막하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태상으로 '-지막-' 을 '-직-' 과 '-으막-' 의 결합체로 해석할 수 있다. '-직막-' 의 음절 끝소리 /ㄱ/이 중복된 결과 첫 음절의 /ㄱ/이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막-' 이 결합된 어근은 '-직-' 이 결합될 수 있는 어근 중의 일부이다. 이것은 '-직-' 이 포함된 형용사의 일부에 다시 '-으막-' 이 결합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직-' 이 원칙적으로 정도가 큰 형용사에 결합되고, '-으막-' 이 정도가 작은 형용사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두 접미사가 같은 어근에 함께 나타나는 것은 분포상 모순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으막-' 의 분포가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전남 방언에서 그러한 확대가 일어났으므로 중앙어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확대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 형용사라도 '널찍하다, 길찍하다, 얄찍하다' 나 공간 형용사가 아닌 '묵직하다, 굵직하다, 되직하다, 늙직하다' 등에는 '-으막-' 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막-' 이 매우 제한된 낱말에서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남 방언은 중앙어에 쓰이는 '높지막하다', '멀찌막하다' 외에 '넙지막하다' 가 쓰이고 있음이 특별하다.

2.1.1.1.3. -드라-

중앙어에는 주로 공간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로 '-다랗-' 이 있다(송철의 1992: 221). 이 '-다랗-' 은 '-다라하-' 에서 /ㅏ/의 탈락으로 인해 축약된 어형이다. 기원적으로 '-다라-' 와 '-하-' 의 두 접미사가 결합된 것이나 공시적으로 두 접미사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접미사인 '-다랗-' 을 설정하는 것이다.

(2) 가. 깊다랗다/*얕다랗다, 높다랗다/*낮다랗다, 머다랗다/*가깝다랗다, 커다랗다/*작다랗다
나. 기다랗다/짤따랗다, 굵다랗다/가느다랗다, 널따랗다/좁다랗다, 두껍다랗다/얄따랗다
다. *굵다랗다/잗다랗다, 곱다랗다, 되다랗다/*묽다랗다,

예 (2)의 (가)와 (나)는 '-다랗-' 이 공간 형용사에 결합되는 경우이고, (다)는 그밖의 형용사에 결합되는 경우이다. (2가)는 정도가 큰 경우에만 쓰인 예이며, (2나)는 정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쓰인 경우이다. (2가)와 (2나)의 분포로

미루어 '-다랗-' 은 원래 정도가 큰 공간 형용사에 쓰이다가 그 영역이 확대되어 (2나)처럼 크기에 상관없이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공간 형용사가 아닌 영역에까지 넓혀져서 (2다)와 같은 쓰임을 갖게 것으로 추정된다.

'-다랗-' 은 '-으막-' 이나 '-직-' 과 마찬가지로 정도를 나타내지만 그 정도의 크기는 다르다. 사전에서는 '높다랗다' 를 〈썩 높다〉, '커다랗다' 를 〈매우 크다〉 등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런 뜻풀이는 곧 '-다랗-' 이 가리키는 정도가 '-으막-' 이나 '-직-' 의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높다란 하늘' 은 가능하지만 '높직한 하늘' 은 어색하고, '널따란 평야' 는 자연스럽지만 '널찍한 평야' 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정도 차이 때문이다.

이밖에도 '-다랗-' 과 '-직-' 은 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굵다, 넓다, 높다' 는 두 접미사의 결합을 모두 허용하지만, 의미적으로 약간 다른 점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높다란 나무 꼭대기' 는 자연스럽지만 '높직한 나무 꼭대기' 는 어색하다. '높직하다' 는 부피가 큰 '건물, 대문, …' 등에 어울리고, '높다랗다' 는 좁고 긴 물건의 높이를 형용하는 데 더 알맞다. 한편 '-다랗-' 이 구체적인 경우에만 쓰일 뿐 추상적인 의미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쓰이지 못하는 점은 '-으막-' 이나 '-직-' 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송철의 1992:222).

중앙어의 '-다랗-' 에 대응하는 전남 방언의 접미사로 '-드라하-', '-드란하-', '-드락하-' 등이 있다. 중앙어 '-다랗-' 이 원래 '-다라하-' 로부터 발달한 것임을 감안하면 전남 방언의 접미사들은 '하' 의 축약을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남 방언에서 '하' 가 축약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만하다(=많다), 괜찬하다(=괜찮다), 놀하다(=노랗다), 안하다(=않다), …' 등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오히려 축약 대신 전남 방언은 '-드라-' 와 '-하-' 사이에 /ㄴ/이나 /ㄱ/이 첨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ㄱ/의 첨가는 신안, 진도 등 전남의 서남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ㄴ/의 첨가는 나머지 내륙 지역에서 일어났다.[6] 예를 들어 '-드라하-' 나 '-드락하-', '-드란하-' 가 '질다(長)' 에 결합되면 '지드라하다' (순천), '지드락하다' (진도), '지드란

하다' (기타 지역) 등으로 나타난다.[7]

한편 '지드란하다' 는 '란' 의 모음이 /ㅐ/로 변이되어 '지드램하다' 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두 어형으로부터 /ㅡ/와 /ㄹ/이 탈락된 '지단하다' (담양)나 '지댐하다' (순천, 광양, 광주) 등의 어형이 확인된다. 이처럼 원래의 형에서 /ㅡ/와 /ㄹ/이 탈락한 예는 다른 낱말에서도 찾아진다. 예를 들어 '커다랗다' 와 '높다랗다' 에 대응하는 '*크드란하다' 나 '*노푸드란하다' 는 확인되지 않지만,[8] '크댄하다' , '노푸댄하다' 등은 나타나는데 이들 낱말은 '지단하다' 와 마찬가지로 /ㅡ/와 /ㄹ/이 탈락되어 생긴 어형이다.

(3) 가. 크드란하다 → 크드랜하다 → 크댄하다
나. 노푸드란하다 → 노푸드랜하다 → 노푸댄하다

한편 전남 방언에는 '곱단하다' (=곱다랗다)나 '곱닷하다' (=곱다랗다)의 예도 찾아진다. '곱단하다' 는 위의 (3)과 같이 '곱드라하다 → 곱드란하다 → 곱단하다' 처럼 /ㅡ/와 /ㄹ/이 탈락을 겪어 생긴 어형이다. 이 '곱단하다' 의 어기 '곱단' 이 경우에 따라 '곱닷' 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어형 '곱닷하다' 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ㄴ/이 /ㅅ/으로 변이하는 다른 예가 찾아지지 않는 것이 이런 추정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9] '곱닷하다' 와 같은 유형의 낱말로 '쫍닷하다' 가 더 있다.

전남의 신안 지역에서는 '-드라하-' 대신 '-드라신하-' 또는 '-드락신

6) /ㄴ/이 '라' 와 접미사 '-하-' 사이에 첨가되는 예로 '아시란하다' (=아스라하다)를 추가할 수 있다.
7) 진도에서는 '지드륵허다' 로 실현되기도 한다.
8) 노푸드란하다' 대신 '높다란하다' 와 같은 어형이 전남 방언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교육 받은 토박이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앙어 '높다랗다' 와 토박이형 사이의 혼태로 보인다.
9) 반대로 /ㅅ/이 /ㄴ/으로 변이하는 예로는 '실컷/실컨' , '한껏/한큰' , '여태껏/여태끈' 등을 들 수 있다.

하-' 가 쓰여 흥미롭다. 이 두 형 모두 '신' 을 첨가한 점에서 공통적인데, 이에 따라 '기다랗다' 에 대한 '찌드라신하다' , '커다랗다' 에 대한 '크닥신하다' 등의 방언형이 나타난다. '크닥신하다' 는 '*크드락신하다' 로부터 /ㅡ/와 /ㄹ/이 탈락되어 생긴 것임은 물론이다.

전남 방언의 '-드라하-' 는 중앙어의 '-다랗-' 에 비해 훨씬 제약되어 쓰인다. 공간 형용사 가운데 '크다, 높다, 길다' 의 세 형용사에서만 가능할 뿐, 중앙어에서 결합할 수 있는 '멀다, 깊다' 에 덧붙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2나)와 (2다)에서 보인 '굵다랗다, 가느다랗다, 널따랗다, 두껍다랗다, 얄따랗다, 잗다랗다, 되다랗다' 등은 전남 방언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낱말이다. 그렇다면 '-드라하-' 는 '-다랗-' 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좁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드라하-' 가 쓰이는 형용사들이 모두 정도가 큰 것이라는 점은 '-다랗-' 이 원칙적으로 정도가 큰 공간 형용사에 사용되었다는 앞서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중앙어가 겪었던 쓰임의 영역 확대가 일어나지 않아 원래의 용법인 (2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① 상태형용사

ⓐ-지근-

중앙어에서 접미사 '-지근-' 이 사용된 낱말은 다양한데,[10] 그 쓰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4) 가. 고탑지근하다, 덴덕지근하다, 뜸지근하다, 무지근하다, 숙지근하다,[11] 추접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나. 걸쩍지근하다,[12] 께적지근하다,[13] 날짝지근하다, 늘쩍지근하다,

10) '-지근-' 은 낱말에 따라 '-치근-' 또는 '-찌근-' 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11) '숙지근하다' 는 〈맹렬하던 기세가 누그러진 듯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만약 그 어근을 〈숙다〉의 '숙-' 에서 찾는다면 이 형용사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걸쩍지근하다' 의 어근은 '입이 걸다' 의 '걸-' 이다. '걸-' 은 '걸쭉하다' 등에

물쩍지근하다

다. 노리치근하다/노리착지근하다,[14] 노자근하다/노작지근하다,[15] 누리치근하다/누리척지하다, 뉘지근하다/뉘척지근하다, 들치근하다/들척지근하다, 매지근하다/매작지근하다, 미지근하다/미적지근하다, 배리치근하다/배리착지근하다, 비리치근하다/비리척지근하다, 빡지근하다/빡작지근하다, 새치근하다/새척지근하다, 쉬지근하다/쉬척지근하다,[16] 시지근하다/시척지근하다, 알찌근하다/알짝지근하다, 얼찌근하다/얼쩍지근하다

라. 섬쩍지근하다, 트적지근하다

우선 '-지근-' 이 결합된 파생 형용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어근에 '-지근-' 만 결합되는 경우와, '-적지근-' 형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때 '적' 은 낱말에 따라 '척' 이나 '쩍' 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접미사 '-직-' 이 '-칙-' 이나 '-찍-' 으로 실현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위에서 (4가)는 어근에 '-지근-' 만 결합된 경우이며, (4나)-(4라)는 '-적지근-' 이 결합된 경우

남아 있다.

1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께지근하다/께적지근하다' 는 〈꺼림칙하다〉의 북한어로 풀이되어 있다. 한편 표준어에서 '께적지근하다' 는 〈조금 너절하고 지저분하다〉의 뜻을 갖는데, 이런 의미로 쓰이는 '께지근하다' 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한편 '께지근하다' 의 약한 말로 '게적지근하다' 가 표준어에 있으나 이 역시 '게지근하다' 형을 갖지 않는다.

14) '노리착지근하다' 의 두 번째 음절 '리' 가 탈락하여 '노착지근하다' 로 쓰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누리척지근하다' 에서 '누척지근하다' , '배리착지근하다' 에서 '배착지근하다' , '비리착지근하다' 에서 '비착지근하다' 등이 축약형으로 쓰인다. 한편 '배착지근하다' 와 '비착지근하다' 는 다시 '-착-' 이 없는 '배치근하다' 와 '비치근하다' 로 쓰이기도 한다.

15) '노작지근하다' 에서 '-작-' 이 없는 형으로 '노지근하다' 가 예상되는데, 사전에는 '노지근하다' 대신 '노자근하다' 가 올라 있다.

16) '쉬척지근하다' 로 보아 '쉬치근하다' 가 예상되나 사전에는 '쉬지근하다' 로 올라 있다. '시지근하다/시척지근하다' 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다. 그런데 '-적지근-' 이 결합된 형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4나)처럼 오직 '-적지근-' 형으로만 쓰이는 경우와, (4다)처럼 '-지근-' 과 '-적지근-' 의 두 가지 형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그것이다. 사전에서는 (4다)처럼 '-지근-' 과 '-적지근-' 이 모두 가능한 경우, 전자를 후자의 준말로 보고 있으나, 우리는 접미사 '-적-' 이 수의적으로 어근에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17] 그렇다면 (4나)는 '-적-' 이 필수적으로 결합된 경우이며, (4다)는 수의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는 차이가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4라)는 중앙어에서 오로지 '-적지근-' 으로만 쓰여 '-적-' 의 결합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언에 따라서 '-적-' 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이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섬쩍지근하다' 에 대한 '섬찌근하다' 가 제주 방언에서 쓰이고, '트적지근하다' 에 대한 '트지근하다' 가 북한 방언에서 쓰이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전남 방언에서도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지근-' 과 '-적지근-' 이 쓰이는데, '-적-' 이 없이 '-지근-' 만 결합한 예로는 '후덥지근하다, 무지근하다' , '-적지근-' 만 결합될 수 있는 예로는 '달짝지근하다, 껄쩍지근하다, 뻑적지근하다' [18]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맨작지근하다' , '미적지근하다' 등은 '맨지근하다' , '미지근하다' 처럼 '-적-' 이 수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뻑적지근하다' 는 중앙어의 '빡작지근하다' , '맨작지근하다' 는 중앙어의 '매작지근하다' 등에 각각 대응되는 방언형이다. 한편 '껄쩍지근하다' 는 형태상으로 중앙어의 '걸쩍지근하다' 와 유사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즉 중앙어의 '걸쩍지근하다' 가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거나 말을 함부로 하여

17) 접미사 '-적-/-작-' 은 접미사 '-지-' 앞에서도 수의적인 출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전남 방언에서는 '야물다' 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야무작지다' 와 '야무지다' 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아무작지다' 와 같은 것으로 '야물딱지다' 도 쓰인다.

18) 전남 방언의 '뻑적지근하다' 는 〈① 몸이 찌뿌듯하다 ② (잔치 상 따위가) 요란할 정도로 푸짐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점에서 ②의 의미가 없는 중앙어의 '빡작지근하다' 와는 구별된다.

매우 걸다. 음식 따위가 매우 푸짐하다.〉 등 형용사 '걸다'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전남 방언의 '껄쩍지근하다'는 〈꺼림칙하다〉의 의미를 가져 '꺼리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전남 방언에서 '-지근-'과 '-적지근-'의 사용 양상은 중앙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남 방언에서 두 접미사류가 포함된 낱말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쳐 중앙어에 비해 그 생산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롬-'과 '-으롬-'

전남 방언에는 아래의 (5)와 같이 '-고롬-'의 접미사가 확인된다.

(5) 새고롬하다, 쌩고롬하다, 맹고롬하다

'새고롬하다'는 〈약간 신맛이 있다〉 정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근 '새-'와 접미사 '-고롬-'을 분석해 낼 수 있다. '새고롬하다' 대신 '새곰하다'와 같은 어형도 가능하므로 '-고롬-'이 경우에 따라 '-곰-'으로 축약되어 쓰일 수 있는 셈이다. '쌩고롬하다'는 〈날씨가 차고 흐리다〉의 뜻을 갖는데, 이보다 정도가 큰 형용사로 '쌔하다'가 있어 아마도 이때의 어근 '쌔-'로부터 파생된 낱말로 추정된다. '쌩고롬하다'도 경우에 따라 '쌩곰하다'로의 변이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차고 흐린 날씨를 가리키는 '맹그롬하다'의 어근 '맹'에 대한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쌩그롬하다' 등의 비교를 통해 가상적 어근 '맹-'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맹고롬하다'로부터 축약된 '*맹곰하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롬-'은 중앙어에서 쓰이지 않는 것이다. 대신 중앙어에는 '-으름-'이 있다. 이 '-으름'은 '불그름하다, 버드름하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는 '-으레-/-으래-'와 혼용될 수 있다. '불그름하다'에 대한 '불그레하다'가 이를 보여 준다. 전남 방언에서도 중앙어의 '-으름-'에 대응하는 접미사로 '-으롬-/-으룸-'이 있는데, '불그룸하다, 물그룸하다(=묽숙하

다), 꼬소롬하다(=고소하다)' 등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롬-' 이 낱말에 따라 '-곰-' 으로 축약될 수 있었던 데 반해 '-으롬-' 은 '-옴-' 으로 축약되지 않는다.

ⓒ-스름-

중앙어에는 '-스름-' 이 결합된 파생 형용사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6) 가. 가느스름하다, 뽈그스름하다, 열브스름하다, 꺼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버스름 하다, 뿌유스름하다, 파르스름하다
나. 갈쭉스름하다, 길쭉스름하다, 꾸부스름하다, 납작스름하다, 넓적스름하다, 동그스 름하다

위의 예에서 (6가)는 형용사의 어간에 '-스름-' 이 결합된 경우이고 (6나)는 어근이나 어기에 '-스름-' 이 결합된 경우인데, '-스름-' 은 어근이나 어기의 정도가 〈조금 있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사전에 '가느스름하다' 는 〈조금 가늘다〉, '뽈그스름하다' 는 〈조금 붉은 듯하다〉 등으로 풀이되어 있다.

전남 방언에도 같은 접미사가 있지만, 대체로 색채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일 뿐,[19] 그밖의 다른 상태 형용사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남 방언에서 '-스름-' 이 결합된 예로는 '까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불그스름하다'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색채 형용사가 아닌 경우는 '동그스름하다' 를 추가할 수 있다.[20] '-스름-' 이 '-스레-' 로 바뀌 쓰일 수 있는 것은 '-으름-' 이 '-으레' 로 혼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혼용은 중앙어와 전남 방언에서 모두 가능하다.

19) 색채 형용사라도 '희다' 는 '-스름-' 이 결합되지 않는데 이 점은 중앙어도 마찬가지이다.

20) '동그스름하다' 보다는 오히려 '동그람허다' 가 더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 -콤-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접미사 '-콤-'이 붙는 경우가 있다. '-콤-' 외에 '-곰-', '-금-', '-큼-' 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콤-'을 들기로 한다. 이 '-콤-'은 맛 가운데 '달다, 시다, 맵다'의 세 가지 경우에만 결합될 뿐, 나머지 맛인 '짜다, 쓰다, 떫다' 등에는 결합하지 못한다. '시-'에 '-콤-'이 결합될 때에는 '시-' 대신 '새-'가 쓰인다. 이 '-콤-'은 대체로 해당되는 맛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쓰인다. 그래서 '달콤하다'는 〈알맞게 달다〉, '새콤하다'는 〈약간 신맛이 있다〉, '매콤하다'는 〈가볍게 맵다〉로 사전에 뜻풀이가 되어 있다.

한편 '짜다, 쓰다, 떫다' 등에는 '-콤-'이 결합되지 못하는데 그 대신 '짭짤하다, 씁쓸하다' 등 어간의 반복형과 여기에 덧붙은 'ㄹ'이 어기를 형성한다. '짭짤-'과 '씁쓸-'의 'ㅂ'은 'ᄡᅳ-', 'ᄡᅳ-' 등 옛말의 화석이다(송철의 1992: 292). 다만 '떫다'의 경우, '떨떨하다'가 있는데, 이 말은 〈떫은 맛이 약간 있다〉와 같은 의미는 없고, 대신 〈마음이 내키지 않다〉의 의미로만 쓰인다. '짭짤하다'나 '씁쓸하다'도 원래는 특정한 맛을 가리키지만, 그 의미가 추상화하여 '짭짤하다'는 〈야무지다〉나 〈실속이 있다〉의 뜻으로, '씁쓸하다'는 〈달갑지 않아 싫거나 언짢은 기분이 나다〉 등의 뜻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떨떨하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다〉와 같은 추상적 의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낱말은 '짭짤하다'와 '씁쓸하다'와는 달리 원래의 의미인 떫은 맛을 가리키지 않는 점이 다르다.

한편 이들 낱말들에 다시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짭짜름하다, 씁쓰름하다, 떨떠름하다'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세 낱말은 모두 특정의 맛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떨떠름하다'도 '짭짜름하다'나 '씁쓰름하다'와 마찬가지로 맛을 가리키는 의미와 추상화된 의미의 두 가지를 갖는 셈이 되는데, '떨떠름하다'의 어기 역할을 했던 '떨떨하다'가 맛을 가리키지 못했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떨떨하다'도 원래는 두 의미를 갖다가 나중에 맛을 가리키는 의미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떨떠름하다'의 파생은 두 의미를

갖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음-' 은 '-으래-/-으레-' 와 바꿔 결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라 '짭짜래하다' 나 '씁쓰레하다' 같은 낱말의 파생이 가능하다. 다만 '*떨떠레하다' 는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어형이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남 방언도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콤-' 에 의한 파생과 어간의 반복에 의한 파생이 구별되며, 그 분포에 있어서도 중앙어와 완전히 같다. 다만 '떫다' 의 경우, 중앙어에서 '떨떨하다' 가 파생되었다면 전남 방언은 '떱떨하다' 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물론 전남 방언에서 기저형의 끝소리 /ㄹㅂ/이 /ㅂ/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중앙어의 '널찍하다' 가 이 방언에서 '넙직하다' 로 실현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남 방언의 '떱떨하다' 는 중앙어의 '떨떨하다' 와 달리 〈떫은 맛이 약간 있다〉를 의미할 뿐 〈마음이 내키지 않다〉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중앙어에서 '-음-' 이 결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남 방언에서도 '-옴-' 을 덧붙여 새로운 형용사를 파생시키는데, 이에 따라 '짭짜롬하다, 씁쓰롬하다, 떱떠롬하다' 등의 낱말이 만들어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섯 가지의 맛은 파생의 방식에 따라 '-콤-' 이 붙는 '달다, 시다, 맵다' 와 어간이 중복되는 '짜다, 쓰다, 떫다' 의 두 부류로 나뉜다. 이 두 부류들이 왜 같은 부류를 형성하는지는 의문이다.

2.1.2. '-시롭-' 에 의한 파생

전남 방언의 접미사 '-시롭-' 은 중앙어의 '-스럽-' 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중앙어와 완전히 같다. 그런데 전남 방언은 중앙어에서 불가능한 여러 낱말들에서 '-시롭-' 이 결합될 수 있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7) 가. 미안시롭다(=미안하다), 어색시롭다(=어색하다), 귀찬시롭다(=귀찮다), 깨깟시롭다(=깨끗하다), 옹삭시롭다(=옹색하다), 험시롭다(=험하다)
나. 까다락시롭다(=까다롭다), 까탈시롭다(=까다롭다)

다. 재미시롭다(=재미있다), 꾀시롭다(=꾀가 많다)
라. 궁상시롭다(=궁상맞다), 몰쌍시롭다(=매몰차다), 거판시롭다(=성대하다), 끄척시롭다(=엉뚱하다)
마. 까시롭다(=까다롭다), 어시롭다(=어색하다), 성가시롭다(=성가시다)

(7가)는 중앙어에서 '-하-' 에 의해 파생되는 경우인데, 전남 방언은 '-하-' 자리에 '-시롭-' 이 쓰인다. 물론 전남 방언에서도 '-하-' 를 사용하여 중앙어와 같은 형태의 낱말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은 두 가지의 어형을 혼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혼용의 가능성은 곧 전남 방언의 '-시롭-' 이 중앙어의 '-하-' 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 대체의 변화가 진행 중인 탓에 두 접미사의 혼용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7나)에서 중앙어의 '까다롭다' 를 만약 '까다-롭-' 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이때 쓰인 '-롭-' 대신 전남 방언은 '-시롭-' 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롭-' 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에 결합하므로 자음으로 끝나는 '까다락' 이나 '까탈' 과 같은 경우에 '-롭-' 대신 '-스럽-' 의 방언형 '-시롭-' 이 쓰인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7다)는 '있다' 나 '많다' 처럼 존재를 나타내는 형용사 대신 '-시롭-' 이 쓰인 것으로서 이것은 결국 '-시롭-' 이 어떠한 속성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7라)의 '궁상시롭다' 는 중앙어의 접미사 '-맞-' 에 '-시롭-' 이 대응하는 경우이며, (7라)의 나머지 예들은 모두 의존적인 어근에 '-시롭-' 이 결합된 것이다. (7마)는 특정의 어근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까시롭다' 는 의미로 보아 '까탈시롭다' 와 같은데 그렇다면 '까시롭다' 의 어근 '까' 는 '까탈' 의 첫 음절인 셈이다. '어시롭다' 도 마찬가지이다. 이 낱말은 '어색시롭다' 와 같은 뜻을 가지므로 '어시롭다' 의 어근 '어' 는 '어색' 의 첫 음절인 셈이다. 따라서 '까' 나 '어' 는 모두 '까탈' 이나 '어색' 에서 온 어근이라 할 수 있다. (7마)의 '성가시롭다' 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중앙어 '성가시다' 는 본시 '성(性)' 과 '가시다' 의 합성어인데,[21] 전남

21) 중세어에서는 '셩가시다' 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파리하다〉나 〈초췌하다〉

방언에서는 '성가'를 어근으로 재분석하여 여기에 접미사 '-시롭-'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용사를 파생시켰다.[22] 이처럼 어근의 재분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전남 방언에서 '-시롭-'이 매우 생산적인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2. 형태적 접미사

2.2.1. '-압-'에 의한 파생

전남 방언에는 '나찹다', '가찹다', '야찹다'와 같은 공간 형용사가 있다. 이들은 각각 중세어의 'ᄂᆞᆺ갑다', '갓갑다', '넏갑다' 등에 대응하는데(이기문 1998:162), 그렇다면 전남 방언의 접미사 '-찹-'은 중세어의 '-갑-'에 대응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23] 이승재(1983)에서는 '나찹다'의 '나찹-'을 '*ᄂᆞᄌᆞᆨ-압'으로 재구하여, 어기 'ᄂᆞᄌᆞᆨ-'에 접미사 '-압-'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가찹다' 역시 '*가ᄌᆞᆨ-압-'에서 온 것이다.

'-압-'이 결합되는 형용사들은 공간 형용사 가운데 정도가 작은 부류에 한한다. 예를 들어 '높-, 멀-, 짚-' 등에는 결합되지 않는다.[24] 특히 공간 형용

등이다. 몸의 '성(性)'이 가시면 초췌하게 되는 것일 텐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육체적 변화의 의미는 없고 정신적인 '성(性)'을 가시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함을 잃은 상태를 뜻할 뿐이다. 그렇다면 '성가시다'는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뀐 셈이다.

22) '성가시롭다'를 '성가시다'의 어간에 접미사 '-롭-'이 결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롭-'은 어근이나 명사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23) '-찹-' 외에 '-삽-'이 쓰이는 수가 있는데, 전남 신안 지역에서 '가찹다' 대신 쓰이는 '가삽다'가 어린 예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ㅊ/과 /ㅅ/ 또는 /ㅆ/이 대립을 보이는 다른 예로서 접미사 '-치-'와 '-씨-'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빨치다'는 전남 내륙에서, '자빨씨다'는 서남해안 지역에서 쓰이는 형으로서 모두 〈넘어뜨리다〉의 의미를 갖는다.

24) 중세어에서는 공간 형용사가 아닌 경우에도 '-갑-'이 쓰여 '맛갑다'(=알맞다)

사 가운데서도 '길다/짧다, 넓다/좁다' 등에는 비록 정도가 작은 경우라도 '-압-' 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공간 형용사 가운데서도 '높다/낮다, 깊다/얕다, 멀다/가깝다' 등이 더 긴밀한 자연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모두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특정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즉 '높다/낮다' 는 기준으로부터 위, '깊다/얕다' 는 기준으로부터 아래, '멀다/가깝다' 는 기준점으로부터 같은 평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이기갑 1983).

전남의 서남 해안 지역에 '마랍다' (=목이 마르다)와 '제랍다' (=저리다) 등이 확인된다. 이 낱말은 전남 내륙의 '모르다' 와 '제리다' 등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각각 접미사 '-압-' 에 의해 방언적 분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의 공간 형용사에 붙는 '-압-' 이 전남 전역에서 쓰이는 것과 비교하면 그 분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차이이다.

2.2.2. '-옵-' 에 의한 파생

전남 방언의 형용사 가운데는 접미사 '-옵-' 의 유무에 의한 분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시리다/시롭다', '씨리다/씨롭다', '호시다/호숩다', '따시다/따숩다', '꼬시다/꼬숩다' 등이 그것이다(이기갑 1987). 일반적으로 전남의 동부 지역에서는 '-옵-' 이 없는 형용사, 서부 지역에서는 '-옵-' 이 있는 형용사가 쓰여 지역에 따른 변이를 보인다. 형태상으로 보아 서부 지역형은 동부 지역형에 접미사 '-옵-' 을 결합하여 생긴 것이므로, 이때의 '-옵-' 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오직 방언형의 형성에만 관여하는 접미사라 할 것이다.

접미사 '-옵-' 은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심리 형용사나 상태 형용사에 결합될 수 있을 뿐, 앞에서 언급한 공간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분포적 특징을 보여 준다.

와 같은 낱말이 가능했으나, 이런 낱말은 현대의 전남 방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2.3. '-읍-' 에 의한 파생

전남 방언에는 접미사 '-읍-' 의 유무에 따른 지역적 분화가 나타난다. 전형적으로 접미사 '-하-' 에 '-읍-' 이 결합되어 '-합-' 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이는 주로 전남의 서남 해안 지역인 신안, 진도, 완도, 해남 등지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징하다/징합다', '독하다/독합다', '중하다/중합다' 등의 대립이 확인된다. 어기가 모음이나 /ㄹ/로 끝날 때에는 '-합-' 의 /ㅎ/이 탈락되어 '-압-' 으로 되면서 선행하는 어근과 축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간사하다/간삽다',[25] '서늘하다/서느랍다', '솔하다/소랍다' (=수월하다) 등의 변이가 나타난다.

접미사 '-읍-' 이 '-하-' 가 없는 형용사의 어간에 결합되기도 한다. '날쌉다' (=날쌔다/신안), '서투룹다' (=서투르다/진도), '얄붑다' (=얇다/영암 · 해남), '짤붑다' (=짧다/해남), '가눕다' (=가늘다/신안) 등의 예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날쌉다' 에 대한 '날싸다' 가 전남 담양에서 확인된다. '서투룹다' 는 다른 지역의 '서툴다' 에 '-읍-' 이 결합되어 '서투릅다' 가 된 후 /ㅂ/에 동화되어 '서투룹다' 로 변한 것이다.

전남의 서남부 해안 지역이 아닌데도 접미사 '-읍-' 이 쓰이는 수가 있다. 이때는 대체로 전남의 동북부 지역에 나타나는 변이인데, '씹다' (=쓰다/광양 · 여수), '짭다' (=짜다/구례 · 광양 · 승주 · 순천), '찹다' (=차다/보성 · 고흥 · 광양 · 구례 · 승주 · 여천), '더듭다' (=더디다/고흥), '더딥다' (=더디다/곡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ㅂ-' 은 경상도 방언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어근에 직접 '-읍-' 이 결합하는 수가 있는데, '성갑다' (=성가시다/진도 · 완도)가 이에 속한다. '성가시다' 의 '성가' 가 전남 방언에서 어근으로 재분석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성갑다' 는 이 어근 '성가-' 에 '-읍-' 이 결합되었다.[26] 이 '성갑다' 형 역시 전남의 서남해 지역에서 확인된다.

---

25) 같은 뜻의 '깐삽다' 가 광양 지역에서 확인된다.

26) '성가' 가 어근으로 재분석된 것은 나주 지역에서 쓰이는 '성가싫다' 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모둡다'(=마디다/담양 · 나주), '찔굽다'(=질기다/담양) 등은 전남의 북부 내륙에서 확인된 어형으로서 접미사 '-읍-'이 낱말에 따라서는 전남의 북부 지역에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부사 파생 접미사

부사 파생 접미사도 형용사 파생 접미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적 접미사와 형태적 접미사만 나타난다. 접미사의 종류에 있어서는 중앙어와 전남 방언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접미사별로 그 쓰임을 기술한다.

3.1. -니

접미사 '-니'는 '-하-'를 포함한 형용사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데, 아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8) 가. 깨깟하니(=깨끗하게/깨끗이) 씰어라.
나. 여그서 조용하니(=조용하게/조용히) 앙거 있어.

이 '-니'를 부사형 어미로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동사가 아닌 형용사에만 결합한다는 점, 그리고 형용사 가운데서도 '-하-'를 갖는 경우에만 결합되는 분포상의 제약 때문에 어미 대신 접미사로 보려는 것이다.[27]

27) 중앙어에서도 '멍하니', '우두커니'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예는 이 논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것이다.

3.2. -이

접미사 '-이'는 예 (9)에서 보듯이 어근이나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의미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점에서 중앙어와 같다.

(9) 솔곳이(=솔깃이), 수북이, 이(=얕게), 온이(=온통)

그러나 전남 방언의 '-이'는 이밖에도 아무런 의미적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새로운 방언형만을 형성하는 형태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10)의 예가 이런 부류이다.

(10) 손세이(=손수), 으레이(=으레), 쪼깐이(=조금)

이런 형태적 기능을 하는 접미사 '-이'는 그 결합이 수의적이어서 '-이'가 없는 어형도 함께 쓰인다. 따라서 '손세이'와 '손세', '으레이'와 '으레', '쪼깐이'와 '쪼깐'은 모두 전남 방언에서 가능한 낱말들이다.

3.3. -로

접미사 '-로'는 기원적으로 도구격 조사 '로'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시적으로는 접미사로 분석한다. 이 '-로'는 전남 방언에서 각각 의미적 기능과 형태적 기능을 수행한다.

(11) 가. 벌로(=허투루), 새시로(=새로)
나. 댑대로(=오히려), 연방이로(=연달아), 온이로(=온통), 젤로(=제일), 한자로(=혼자)[28]

(11가)는 '-로'가 의미적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로서, '벌로'의 어근 '벌'은 '벌소리'(=허튼소리) 등에서 확인된다. '벌'은 흔히 된소리인 '뻘'로 쓰이기도 한다. '새시로'는 중앙어의 '새로'에 대응하는데, 어근 '새시'가 따로 쓰이는 예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때의 '로'가 접미사로 분석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상적인 어근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반면 (11나)는 형태적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로'가 없는 어형도 가능하여, '댑대'와 '댑대로', '연방'과 '연방이로', '온이'와 '온이로', '젤'과 '젤로', '한자'와 '한자로' 등이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한다.

3.4. '-껏'과 '-씬'

접미사 '-껏'은 중앙어에서도 '마음껏', '정성껏', '힘껏', '양껏', '이제껏', '아직껏', '여태껏'과 같이 명사나 부사에 붙어 〈그것이 닿는 데까지〉, 〈그때까지 내내〉 등의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점은 전남 방언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전남 방언은 이들 낱말 외에도 '배지껏', '복장껏'과 같은 낱말을 형성하는 데에도 관여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배지껏'의 '배지'는 지역에 따라 '배아지'로도 쓰이는데 중앙어의 '배때기'에 대응하는 속어이므로, '배지껏'은 〈배가 부를 만큼 양껏〉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복장껏'의 '복장'은 한자어 腹臟으로서 전남 방언에서는 〈배〉 또는 〈가슴〉을 가리킨다. 따라서 '복장껏'은 앞에서 언급한 '배지껏'과 마찬가지로 〈배가 부를 만큼 양껏〉의 의미로 해석된다.

'양껏'에는 접미사 '-껏'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남 방언에는 '양껏'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양씬'이 쓰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때의 '-씬' 역시 '-

28) '발씨로/볼쑤로'(=벌써)의 '로'도 같은 종류의 접미사로 보인다. 다만 '발씨'나 '볼쑤'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대신 '발써'나 '볼쎄' 등이 쓰이는데, 이 점으로 보면 '발씨'나 '볼쑤'는 '발써'나 '볼쎄'에 '로'가 결합할 때의 변이형으로 보인다.

껏' 에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접미사인 셈이다. 다만 이 '-씬' 이 '양씬' 외의 다른 낱말에 사용된 예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3.5. -씨

전남 방언에서 접미사 '-씨' 는 '공연씨' 나 '무담씨' 등에서 확인된다. 이 두 낱말은 〈괜히〉를 의미하는 동의어이다. 중앙어 '기어이' 에 대응하는 전남 방언형 '기언씨' 의 '-씨' 도 같은 종류의 접미사로 보인다. '기언씨' 외에 전남 방언에는 '기엉코' , '기언치' 등이 있는데, 이들에서 어근 '기언' 이 분석될 수 있으므로 접미사 '-씨' 를 추출해 내는 일은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다.

3.6. -나

접미사 '-나' 는 '데차나' (=과연)와 '전히나' (=전혀) 등에서 확인된다. 이 '-나' 는 오로지 형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데차나' 와 '데차' , '전히나' 와 '전히' 의 두 가지 형태가 의미 차이 없이 모두 함께 쓰일 수 있다.

3.7. -케

전남 방언의 '나케' (=나중에), '다케' (=다음에)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때의 '-케' 가 접미사로 분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나케' 의 '나' 나 '다케' 의 '다' 는 각각 중앙어 '나중' 과 '다음' 의 첫 음절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과연 독립된 어근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케' 는 '-코' 로도 실현되어 '나코' 와 같은 어형이 확인된다.

4. 결론

지금까지 전남 방언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접미사들은 모두 의미적 기능과 형태적 기능을 수행할 뿐, 정의적 기능을 수행한 것은 없었다. 명사 파생의 경우 '버르장머리'의 '머리'나 '멋대가리'의 '대가리' 등은 순전히 말할이의 비하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의적 접미사로 쓰였으나(이기갑 2005), 형용사나 부사 파생 접미사에서 이러한 정의적 접미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은 명사 파생 접미사와의 중요한 차이로 보인다. 다만 형용사 파생 접미사 가운데 '누리끼리하다', '거무튀튀하다' 등의 '-끼리-'나 '-튀튀-' 등은 어기에 고유한 의미를 첨가하면서도 말할이의 부정적 감정(비아냥이나 못마땅함 등)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점에서 정의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 전남 방언에서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접미사 가운데 '-하-', '-시롭-' 등이 기술되었다. '-하-'는 어근에 직접 결합되기도 하고, 어근에 다른 접미사가 결합된 어기에 결합하기도 한다. 이처럼 '-하-'가 붙는 어기를 형성하는 접미사로 '-으막-', '-직-', '-드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공간 형용사를 어근으로 한다. 이에 반해 '-지근-', '-고롬-/-으롬-', '-스름-', '-콤-' 등은 주로 상태 형용사를 어근으로 하는 것들이다. 이들 어기 형성 접미사들은 모두 중앙어에도 쓰이는 것이지만, 생산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중앙어보다 더 생산적으로 쓰이는 어기 형성 접미사에는 '-으막-', 중앙어보다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로는 '-드라-', '-지근' 등을 들 수 있다. '-시롭-'은 중앙어의 '-스럽-'에 대응하는 의미적 접미사인데,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에 비해 훨씬 생산적으로 쓰여 많은 경우 '-하-'를 대신해 쓰이기도 한다.

(b) 전남 방언의 형태적 접미사에는 '-압-', '-옵-'과 '-읍-'이 있다. 이 가운데 '-압-'은 전남의 전역에서 쓰이는 것이지만, '-옵-'은 주로 전남의

서부 지역, 그리고 '-읍-'은 낱말에 따라 전남의 서남 해안 지역 또는 동부 지역에 나타나는 분포상의 특징을 갖는다.

(c) 전남 방언의 부사 파생 접미사로 '-니', '-이', '-로', '-껏', '-씬', '-씨', '-나', '-케' 등을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이', '-로', '-껏' 등은 중앙어에서도 쓰이는 것이나 나머지 접미사들은 중앙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니', '-씬', '-씨', '-케' 등은 의미적 접미사로 기능하는 것이지만, '-이', '-로'는 의미적 접미사와 형태적 접미사의 두 용법을 모두 갖는 것이다. 반면 '-나'는 오직 형태적 접미사로 쓰여 이 접미사가 없는 낱말('대체', '전히')과 접미사를 포함한 낱말('대체나', '전히나') 등이 아무런 의미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곽충구(1998), 「감각 용언 파생의 방언 분화」, 진단학보 86. 1-26.

송정근(2005), 「미각형용사의 형태론」, 형태론 7권 2호. 303-323.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 사전』, 정음사.

이기갑(1983). 「유추와 의미」, 한글 180. 17-34.

이기갑(1987),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이기갑(2005), 「전남 방언의 파생접미사(1)-명사와 동사의 파생을 중심으로」, 언어학 41호, 한국언어학회. 159-193.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 방언 사전』, 태학사.

이기갑/유영대/이종주(1998),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이기문(1998), 『국어사 개설』(수정 증보), 태학사.

이승재(1983), 「재구와 방언 분화」, 국어학 12. 213-234.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Bauer, Laurie(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05년 10월 15일
게재 결정일: 2005년 11월 29일

ABSTRACT

On the Derivational Suffixes in the Jeonnam Dialect of Korean(Ⅱ) - Adjectival and Adverbial Suffixes -

Lee Kigap

This paper examines adjectival and adverbial suffixes in the Jeonnam dialect. The main goal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l and functional differences of suffixes between the dialect and standard Korean.

Most adjectival and adverbial suffixes of the dialect share the same meanings and forms with those of standard Korean. However, some suffixes show dialectal variations. Having no semantic content, the suffixes '-ap-', '－op－' and '－p－' contribute to form the regional variants and divide the Jeonnam dialect into two sub－dialects.

The suffix '－deuranha－' corresponding to '－daraha－' of standard Korean has many variants, among which '－danha－' has been developed from '－deuranha－' by the deletion of /eur/. Another variant '－deurakha－' or '－deuraksinha－' is different from '－deuranha-', as /k/ and /n/ alternate with each other. We can see the /k/ alternation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Jeonnam area.

Many other adjectival suffixes including '－eumak－', '－jik－', '－jimak－', '－jigeun－', '－gorom－', '－seureum－', '－khom－', and '－sirop－' have the

same forms of standard Korean, but differ in productivity. '－Jik－' and '－jigeun－' are less productive and '－sirop－' is more productive as compared with standard Korean.

There are two uses of adverbial suffixes. While one is to add lexical or grammatical meanings to the roots, the other is to form adverbial variants without any semantic contribution. The adverbial suffixes '－i', '－ro' and '－na' have both uses, but '－ni', '－ssi' and '－khe' only exhibit the morphological function of word－formation, not semantic or grammatical.